

존엄사에서 웰다잉 Well dying으로

| 정계섭 |

죽음을 피해야 할 현상이나 눈 감고 두려워해야 할 무엇으로 보지 않고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할 조건으로 보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때 드디어 삶과 죽음의 화해가 일어나고 우리 내면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요(편집자 주).



인 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이다. 가장 불확실한 것은? 죽음 후 미지의 세계! 죽음은 언제나 ‘타인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은 타인의 경험이 된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죽음을 체험할 수 없다. 바로 여기에서 공포의 기제가 작동한다.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에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이다. 외롭고 쓸쓸한 무덤 중에는 소년의 무덤이 많다고 하지 않던가. 그래서 사람들은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다 2~3일만 아픈 뒤 사망(4)하고 싶다.”(9988234)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조선일보 2013년 11월 4~5일자는 ‘한국인의 마지막 10년’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마지막 10년 중 절반은 앓다 떠난다는 암울한 보고를 하고 있다. 환자 본인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환자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자. 2010년 영국 이코노미스트 연구소EIU가 실시한 ‘죽음의 질 지수Quality of Death Index’ 조사에서 영국은 1위, 한국은 32위에 처져 있다. 영국은 이미 1967년 현대적 호스피스(더 이상 치료가 듣지 않을 때, 통증 관리를 하면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개념을 도입한 나라인데다, 2008년에는 ‘생애말기 치료 전략The End of Life Care Strategy’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좋은 죽음Good Death’이다.

좋은 죽음이란 ① 익숙한 환경에서 ②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③ 가족, 친구와 함께 ④ 고통 없이 죽어가는 것이다.

위의 조사에서 타이완은 전체 14위, 아시아 국가 중 1위였다. 그것은 타이완이 지난 2000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자연사법自然死法을 도입한 덕분이다. 이 법은 선종善終(좋은 죽음)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제 말기

환자는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고통을 완화하며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은 20세 이상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성인이 사전에 호스피스 의향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한다. 이를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데, 회복 불가능으로 판단되는 경우 불요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담은 진술서이다.

이 문제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좀 의외지만 프랑스이다. 역사적인 이유로 부작용(살인, 독살, 방치)을 우려해서인지 프랑스는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니, 2005년 4월 22일 장 레오네티Jean Leonetti 의원이 정부의 암묵적 지원 하에 발의한 이른바 '레오네티 법안'이 그것이다.

이 법인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자동차사고로 사지가 마비되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병상 움베르Vincent Humbert라는 청년인데, 오직 엄지손가락만으로 겨우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이 청년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대통령에게 '죽을 권리Le droit a la mort'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반발한 어머니와 의사는 마취제와 염화칼륨을 주사하여 고통스런 삶을 마감시켜 주었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 풀기 어려운 도덕적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에 종지부를 찍을 권리는 없다. 그러나 인간이 품위를 유지하면서 죽을 권리는 없는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인들은 노후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회생 불가능한 환자까지 연명 치료에 매달린다.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의 전통도 문제다. 그러나 몇 년 전, 안락사를 다룬 김정현

작가의 『아버지』라는 소설이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미루어 보건대, 국민정서가 안락사에 크게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여기에서 프랑스의 레오네티 법안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레오네티 법안은 환자의 의지를 우선적으로 존중한다. 환자는 결정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정보를 통보받고 나서 치료의 거부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의료진은 이 거부나 중단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귀결을 환자와 가족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환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결정을 반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는 어찌할 것인가? 이때에는 타이완의 경우에서처럼 호스피스 의향 신청서가 환자의 의지를 대신한다. 단, 여기에는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3년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 다른 대안으로 가족이나 친구 또는 주치의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때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의사가 아니라 의료진(소생술 전문의, 외과의, 마취의, 암전문의 등)과 가족의 합의이다. 예컨대 말기 암환자에 대한 화학요법을 비상식적인 집착으로 ‘합의’하면 연명치료가 중단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급히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자신의 육체에 대한 통제는 커녕, 통증과 괴로움 앞에서 속절없이 무 지는 자신을 보아야 하는 정신의 고통 또한 어떠하겠는가. 레오네티 법안은 고통에 대한 처방이 설사 목숨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환자의 고통에 대처할 것을 주문한다.

여기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아무리 가혹 하더라도 현실을 부정하려고만 하지 말고, 환자에게 진실을 알리면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해야한다. 이 순간은 산 자와 죽어가는 자 사이에서 용서와 사랑이 확인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 톨스토이의 작품에 나오는 이반 일리치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족과 친구들이 죽음이라는 진실을 외면해서, 그는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기회를 박탈당한 채 깊은 고독 속에서 혼자 몸부림친다. 이는 혼자 죽는 것 못지 은 고독사이다.

하버드대 교수였고 1946년에 고압물리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퍼시 브리지맨Perch W. Bridgman(1882~1961)의 자살은 존엄사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생애 마지막까지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79세의 이 노교수는 자신의 방대한 저서를 완성하여 보낸 직후, 1961년 8월 20일 권총으로 자살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겼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직접 거두도록 만드는 사회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오늘이 지나면 남아 있을 것 같지 않다.”

가히 감탄할 만한 지성과 용기가 아닌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고통만 겪어야 한다면 환자는 자신의 생을 끝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의성 히포크라테스의 철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존엄사를 넘어 ‘성공적인 죽음’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자면 어떻게 나이를 잘 먹어야(Well aging)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자 으뜸가는 지혜가 아니겠는가.

생을 마감할 때 고인이 얼마나 박식한지,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지 등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영적 성숙’으로서, 이것만이

생을 마감할 때 고인이 얼마나 박식한지,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지 등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영적 성숙’으로서 이것만이 평온하게 죽음을 동반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다.

평온하게 죽음을 동반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다.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저항하고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이제까지 인류가 쌓아온 문명이나 문화는 대체 어디에 소용이 되겠는가.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다. 자연의 섭리인 죽음을 외면하거나 흉하게 보는 문화는 반쪽 문화에 불과하지 않은가. 멕시코에는 ‘죽은 자의 날’이 있다고 한다. 우리의 추석처럼 이날 가족묘를 찾아 아름답게 가꾸고 고인의 영혼을 기린다. 또한 일본에는 ‘유언의 날’이 있어서, 변호사를 찾아 상속을 포함하여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날이다. 프랑스에서는 공동묘지가 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산책 코스로도 애용된다.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죽음을 기억하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는 말이다. 살아있는 동안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일들에 끄달려 왔는지 깨닫게 해주고, 인생에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 줄 것이다. 정신적 성숙의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한 사람이 아니면 성공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현자란 평생토록 생사의 문제를 탐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티베트 속담처럼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그것이 곧 내생이다. 언제든 죽음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깨달은 자이다(Carpe diem). 이런 사람은 구름

과 비바람, 꽃과 나무, 여름철 산새들과 매미의 교향곡,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어 보다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우리 미내사클럽이 삶과 죽음을 화해시키는 일, 그러니까 ‘아르 모리엔디Ars moriendi(아름다운 죽음)’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저자 | **정계섭** | 덕성여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학술진흥재단 어문학분과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 프랑스 철학회 교문, 한국 논리학회 운영위원, 한국수학사학회 학술이사, <지금여기> 번역위원